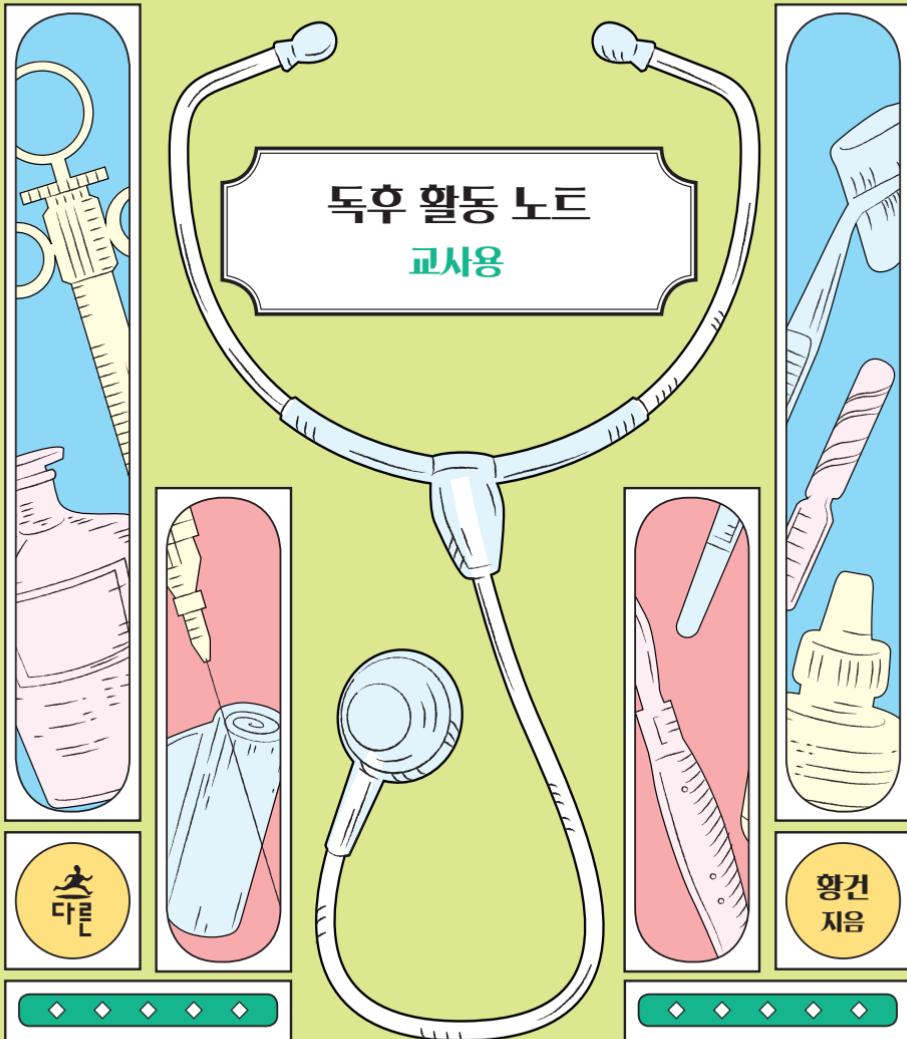


세계사를 바꾼

17명의 의사들

독후 활동 노트
교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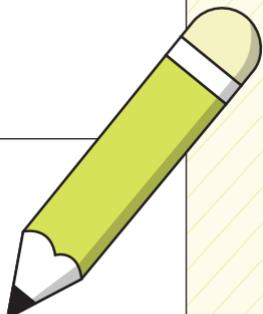


차례

의학, 어디까지 알고 있니?	• 2
새롭게 알게 된 사실	• 4
너도? 나도! 게임하기	• 6
내가 의사가 되어 실험한다면	• 9
책 속 의사들에게 한마디	• 11
저자의 말	• 14



다른출판사 블로그에서
학생용/교사용 독후활동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darun_pub)





수업 1

의학,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먼저 살펴보세요. 알고 있는 의사가 있나요?

그 의사의 이름과 업적을 아는 대로 써보세요.

Tip 알고 있는 의사가 없다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 차례를 보고 궁금해지는 의사를 3명 골라 보세요. 그리고 그 의사에게 관심이 가는 이유를 간단히 써보세요.

Tip 꼭 3명 모두 적을 필요는 없음을 알려 줍니다.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책 읽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내과, 이비인후과 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료과목이지요. 떠오르는 의학 분야를 모두 적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의학 분야가 더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Tip 학생들이 답변을 쓰고 나면, 아래와 같은 전문의학과를 알려 주어 의학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가정의학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산업의학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4. 어떤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다녀온 병원의 진료 과목이 무엇을 다루는지 조사해 보세요.

(1) 진료를 받은 질병

(2) 그 진료 과목에서 하는 일

5. 앞선 활동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학 분야가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수업 2

새롭게 알게 된 사실

- 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장별로 정리해 봅시다.

Tip 책을 읽는 도중에 메모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장	새롭게 알게 된 사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너도? 나도! 게임하기

1.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을 해봐요. ①~⑩의 순서대로 친구들과 점수를 따는 게임을 해봅시다.

Tip 이 게임은 ‘너도? 나도! 파티!’라는 보드게임의 규칙을 응용해 만든 것입니다. 책을 읽는 중 활동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먼저 30분 정도 책을 읽은 다음, 나머지 15분 동안 그날 읽은 의사 2~3명 정도에 대해서만 게임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든 단어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많은 학생이 떠올린 것일수록 중요한 개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은 읽은 내용을 복기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① 5~6명의 모둠을 구성한다.

② 번호가 빠른 사람이 먼저 게임을 주도하는 ‘선플레이어’가 된다.

선플레이어는 책에서 의사 1명을 고른다.

③ 선플레이어를 포함한 모든 모둠 구성원은 각자 게임판에 그 의사와 관련된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6개 적는다. 책을 다시 살펴보면서 써도 좋다.

이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손으로 잘 가린다.

④ 모두 적었다면 선플레이어부터 자신이 적은 단어를 하나씩 말한다.

이때, 같은 단어를 적은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아공’처럼 같은 개념을 가리킨다면 동일한 단어로 인정한다.

⑤ 같은 단어를 쓴 사람의 수만큼 해당 단어에 대한 점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심장’이라는 단어를 3명이 썼다면 3명 모두 3점씩 받는다. 4명이 썼다면 4명 모두 4점씩 받는다. 만약 같은 단어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단어는 0점이다.

- ⑥ 선플레이어가 자신이 쓴 단어 6개를 모두 말하고 나면 그 왼쪽에 앉은 사람이 자신이 쓴 단어를 하나씩 말하고 채점한다. 이때 이미 채점한 단어는 건너뛴다.
- ⑦ 이후 왼쪽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쓴 단어를 말하고 채점한다.
- ⑧ 선플레이어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 새로운 선플레이어가 된다.
- 새로운 선플레이어는 책에서 의사 1명을 고른다.
- ⑨ 총 6명의 의사를 고를 때까지 ③~⑨의 과정을 반복한다.
- ⑩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한다.

의사 ① _____ 관련 단어	점수	의사 ② _____ 관련 단어	점수

의사 ③ _____ 관련 단어	점수

의사 ⑤ _____ 관련 단어	점수



수업 4

내가 의사가 되어 실험한다면

1. 이 책에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등장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 수많은 동물실험이 있었고, 심지어 인체에 대한 실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Tip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서술함으로써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학생 스스로 책에서 생각해 볼 거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더 좋습니다.

- (1) 선한 목표가 있다면 생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옳은 일이 될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2) 현재는 어떤 식으로 질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2.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암과 희귀병을 비롯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그 증상과 함께 정리해 봅시다.
 3. 이 책을 읽어 보면 의술은 많은 의사의 노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질병을 치료, 연구하게 될지 상상해 봅시다.



수업 5

책 속 의사에게 한마디

1.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사를 꼽아 봅시다.

Tip 이 책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의사도 있지만 잘못된 행위를 한 의사도 있습니다. 인물을 선택할 때 잘못을 한 의사를 골라도 좋습니다. 학생들은 그에 대해 글을 써보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1) 책 속에서 의사를 1명 골라 그가 한 일을 정리해 보세요.

누가: _____

언제: _____

어디서: _____

무엇을: _____

어떻게: _____

왜: _____

(2) 신문 기자가 되어 그 의사가 한 중요한 발견을 보도한다면 어떨까요?

기사의 제목을 상상해 보세요.

표제: _____

부제: _____

(3) 그 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편지를 써보세요.

TO. _____

FROM. _____

저자의 말

『세계사를 바꾼 17명의 의사들』은 의학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의학자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미래에 의사가 되길 꿈꾸는 독자들이 의학의 중요한 개념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의사들처럼 의학 분야를 이끌고 세상을 구할 주인공이 독자들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황건

인하대학교 성형외과 펠로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에 <시와 시학>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의사이자 시인으로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의학과 문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독자에게 추천합니다

- 의학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봤다.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되기를 꿈꾼다.
- 인류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 궁금하다.
- 의학과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궁금하다.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준 과학자들을 만나다



탐정이 된 과학자들

전염병 유행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과학자들

마릴리 피터스 지음 | 지어울 옮김
이현숙 감수 | 216쪽 | 14,000원



나쁜 과학자들

인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실험이라도 괜찮을까?

비키 오렌스키 위튼스타인 지음 |
안희정 옮김 | 서민 감수 | 184쪽 | 11,000원



세상을 살린
10명의 용기 있는 과학자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실험한 과학자 이야기

레슬리 멘디, 멜 보링 지음 | C. B. 모단 그림 |
최창숙 옮김 | 238쪽 | 12,000원



사라진 여성 과학자들
왜 과학은 여성의 업적을
기억하지 않을까?

펜드리드 노이스 지음 | 권예리 옮김 |
268쪽 | 14,000원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260여 종의 도서를 출간했으며 대부분의 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교육청, 세종도서 문학나눔 및 교양부문, 책으로 따뜻한 세상만드는 교사들, 행복한 아침독서, 어린이 도서연구회, 학교 도서관저널 등에서 우수도서 및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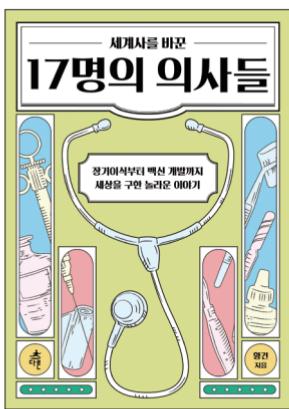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라는 믿음으로 생태, 평화, 인권, 나눔에 관한 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 오늘도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면?



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인류의 수명을 늘린 위대한 의사들



세계사를 바꾼 17명의 의사들

장기이식부터 백신 개발까지
세상을 구한 놀라운 이야기

황건 지음 | 212쪽 | 14,000원

이 책에 나오는 의사들은 흉부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
연구한 분야가 저마다 다르며 살던 시대도 제각각이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하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연구와 실험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난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발견을 해냈다.

‘들어가며’ 중에서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3-12 N빌딩 2층

전화 02-3143-6478 팩스 02-3143-6479

이메일 khc15968@hanmail.net

블로그 blog.naver.com/darun_pub

페이스북 /darunpublishers